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Review for developing a 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Scale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정 현 숙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g, Hyunsook

목 차

- | | |
|-------------------------------|---|
| I. 서론 및 연구목적 | III.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할 이론적, 개념적 논의들 |
| II. 국내외 결혼만족도 측정도구
관련 연구동향 |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related issues of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order to develop a 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Scale. Especially definitional ambiguity, unit of analysis, theory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ssues about measurement and cultural implication are reviewed. Also a section deals with sugges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to develop 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Scale.

주제어(Key Words):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측정도구(measurement),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scale)

I. 서론 및 연구목적

1980년대 이후 가족학 분야의 이론적 발전에 따라(Lavee & Dollahite, 1991), 가족학의 다양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확고한 이론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는 가족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에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가족상담이나 치료분야에서는

실용적인 자료로서 유용성을 증가시켜준다(Schouten, 1994). 그러나 가족은 가족원들의 개인적 발달과, 끊임없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가족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변인들은 정확히 기술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가족학에서 다루는 개념과 측정의 일치를 이루는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은 계속 주장하여왔다

(Miller, Rollins & Thomas, 1982; Fincham, Beach & Kemp-Fincham, 1998; Kluwer, 2000).

가족학의 개념 중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일반부부들의 결혼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상담이나 임상현장에서는 결혼생활의 문제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척도가 이용되어왔다. Boughner와 동료들(1994)이 결혼상담사와 가족상담사를 대상으로 표준화척도 이용정도와 사용하는 표준화도구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의 74%가 표준화척도를 이용하였다. 결혼상담분야에서는 성격척도(56%), 기질척도(20%), 결혼만족도척도(20%)를 많이 이용하며, 결혼만족도가 결혼생활의 문제와 불만요인을 진단하는데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다. 임상적인 효용성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 척도는 많은 연구에서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도 이용되어 왔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40%가 결혼생활에서의 불만 때문에 도움을 청하며(Veroff, Kulka & Douvan, 1981), 이러한 문제들이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에(Fincham, Beach & Kemp-Fincham, 1997)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결혼만족도 연구는 가족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때와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그 이후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의 질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 가족연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발표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 130편 중 결혼만족도 연구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논문들도 결혼만족도가 중요 독립변인으로 이용되고 있다(정현숙, 1997). 또한 결혼만족도는 여성의 성기능 척도(Rosen et al., 2000)나 Bemm의 성역할 척도(Juni & Grimm, 1994)와 같은 다양한 측정도구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도 그 효용성이 높게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는 동맥경화증 환자의 정서적 적응과 결혼만족도(Rodgers & Peter, 1990)에 대한 연구에

서 결혼생활이 심리적 지원체계로서 중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의학분야에서도 결혼만족도 변인이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 연구의 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의해 방법적·이론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측정도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학 분야에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예: Norton, 1983; Roach, Frazier & Bowen, 1981; Sabatelli, 1984; Schumm, Nichols, Schectman, & Grigsby, 1983; Snyder, 1979; Spanier, 1976). 이 시기에 개발된 측정도구는 크게 단일차원의 척도와 다차원적인 척도로 구분된다. 단일차원의 척도로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과 Norton(1983)의 Quality Marriage Index(QMI)가 대표적이다. KMSS는 개발된 이래 여러 학자들(예: Calahan, 1996; Crane, Middleton & Bean, 2000; Green & Woody, 1998; Shek, 1998)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단일차원의 척도는 결혼만족이나 성공을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단일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단일차원 척도의 장점은 결혼생활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축약해서 제시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Burr, 1967). 또한 단일화된 점수는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표현해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Bradbury & Fincham, 1987; Fincham & Bradbury, 1987; Jacobson, 1985). 그러나 단일척도는 결혼에서의 다양성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여러 결혼영역의 다양성을 하나의 일반적인 결혼현상으로 묶음으로써 각 영역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현숙, 199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KMSS는 미국 내 중국 남편들에게도 적용(Shek, 1998)되어 비교 문화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다른 측정도구와의 비교(Calahan, 1996)가 가능해 전반적인 결혼에서의 만족을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척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결혼의 안정성과도 높은 상관(Jeong & Bollman, 1992)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정현숙(1998)은 KMSS는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단일차원의 결혼만족도 척도이지만, KMSS의 기존의 문항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항을 첨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결혼에 대한 관점이 포함된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차원척도는 결혼관계를 다차원 혹은 다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보고 각 하위요인들이 결혼의 성공이나 만족, 혹은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프로파일로 그릴 수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다차원척도는 결혼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은 현존하는 결혼 적응도 척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척도로 평가되고 있으며(Burnett, 1987), 결혼과 가족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척도이다(Sabatelli, 1988). 그러나 DAS척도를 재검증한 연구마다 하위 요인과 문항의 차이가 나타난다(예: Carmines & Zeller, 1979; Sharpley & Cross, 1982; Spanier & Thompson, 1982). Busby, Christensen, Craine과 Larson (1995)에 의해 새로이 개발된 'DAS-수정형'은 이전의 4개의 요인에서 합의, 만족, 응집성의 세 개의 하위요인만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인 결혼만족도 척도는 연구자나 척도가 이용되는 대상 집단에 따라 하위요인이 매우 다양하다.

다차원척도인 Spanier(1976)의 ENRICH도 스웨덴(Wadsby, 1998)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져 비교 문화적인 이용이 가능한 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스웨덴과는 다른 결혼문화를 지닌 국가에 기존 척도의 하위영역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터키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관계의 차원을 분석한 Imamoglu와 Yesim(1997)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과의 조화로운 관계', '성적허용성에 대한 욕구' 등 미국의 결혼만족도 척도와는 다른 하위 차원이 발견되었으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커다란 성차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 척도는 결혼생활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하위 차원과 측정

도구의 길이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Freeston과 Plechaty, 1997).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부 중심의 평등적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 이용함으로써 문화적 오류가 많았으며, 또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많은 결혼만족도 척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되었으나(예: 김득성, 1987, 1989; 이인수, 유영주, 1986),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문제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 하위차원도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척도의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의 효과도 연구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분야 연구의 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변인에 대한 우리나라 부부들의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관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한국적 결혼만족도 척도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결혼만족도 척도의 개발은 부부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임상분야에서는 결혼생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유용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만족도 척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방법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다차원적인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결혼만족도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이론적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척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결혼만족도 측정도구 관련 연구동향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는 숫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에 의해 방법적·이론적인 측면에서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측정도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정현숙, 1997). 우리나라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표 1>과 같이 대부분이 1984년 이후에 발표되었으며, 종래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 편중된 분석에서 성역할태도, 가족가치관, 의사소통, 역할관계 등 다양한 태도변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결혼만족도 관련 이론논문도 발표되고 있다. 척도의 타당화 연구(예: 김득성, 1987, 1989; 이인수, 유영주, 1986)와 기존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예: 정현숙,

1997)연구가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결혼만족도의 이론과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 및 한국의 문화적 실정에 맞는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이나 독립변인으로 이용하는 연구들은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다양하게 개념 정의되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표 2>와 같이 다양하지만 결혼만족도 척도 이

<표 1> 우리나라의 결혼만족도, 결혼적응도 연구 현황과 관련변인*

관련변인	연구자	관련변인	연구자
가족 적응력	김인숙(1993)	결혼만족도이론	윤경자·Schumm(1997)
가족생활주기	이상현(1991), 윤상현(1998) 김화자·윤종희(1991) 이행욱(1989), 정현숙(1996a)	부모-자녀관계 (애착, 자율성)	노명희(1998) 유은희·박성연(1989, 1991)
개인특성 (자기노출, 건강, 자아개념)	고정은(1998) 김명자·박수선(1996) 정은미·김명자(1996) 조성욱·신효식(1987)	성역할태도, 역할수행 역할갈등(기대)	조병은·신화용(1997), 최규련(1984) 윤경자(1997), 이신숙(1998) 최희선·김정옥(1985), 이미숙(1996),
결혼안정성	김득성(1994) 전춘애·박성연(1993)	배우자선택	이경애·조병은(1994) 서광희·조병은(1993)
연구방법	정현숙(1997)	가사분담, 역할	문숙재(1997), 이미숙(1995, 1997)
우울증	김은경(1999), 최규련(1993) 이행욱(1998), 장혜경(1996)	직업, 취업유무	고정자(1998), 이호금(1987)
의사소통	김경숙(1984), 이정순(1985) 김정옥·홍신례(1987) 도미향·최희선(1990)	양육스트레스 부모기전환	양명숙(1991), 정현숙(1996b) 고선주·옥선화(1993, 1996) 전춘애·박성연(1996), 고선주(1997)
갈등대처유형	고현선·지금수(1995)	가족주의 가치	이미숙(1997)
공유여가시간	이기영(1995)	성격특성	현은민(1995)
성격갈등	연구월·이근후(1988)	자녀 행동에 영향	김경은·정옥분(1998) 노명희·이숙(1991)
관계몰입 부부가치일치 부부간애착 배우자지지	오현자(1994) 어은주·유영주(1992) 현은민(1996), 이숙(1999)	취업주부 역할갈등	김경신·김오남(1996) 임정민·정혜정(1986) 황기아·이정숙(1991)
척도연구	김득성(1987, 1989) 이인수·유영주(1986)	남편의 결혼만족도	윤명희·임정민(1985), 고봉선(1987), 조은숙·옥선화(1990)
이혼태도	박찬미·서병숙(1987)	부부간의 차이	이정숙·박상희(1994)

* 국회도서관의 국내학술잡지 기사색인에서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임

용과 관련되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인수와 유영주(1986)에 의해 MSS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은 본 척도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척도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Roach와 동료들이 단일차원 척도로 제시한 것에 반해 타당화 과정에서 6개의 하위요인이 발견되었으며, 요인들의 설명변량도 51% 수준이다. 또한 Varimax 회전을 통해 요인간의 상관을 0으로 고정하였으며 6개의 요인을 발견하였으나, 신뢰도 계수의 산출에서는 단일요인으로 처리하는 개념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정현숙, 1997). 또한 김득성(1986)은 Spanier(1976)의 DAS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4개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으며, 불행한 집단과 행복한 집단간의 변별도가 높은 척도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하위 척도의 문항은 부부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전체 문항에 의해 4요인이 남편은 33.4%, 아내는 33.9%의 설명변량을 나타내고 있다. Schumm과 동료들의 KMSS의 타당화 작업을 통해 김득성(1989)은 세 문항이 실시하기 간단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척도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현숙(1997)은 KMSS가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차원의

결혼만족도 척도이지만, KMSS의 기존의 문항에 '당신은 어머니(아버지)로서의 아내(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한 문항을 첨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척도 타당화 연구는 외국의 척도들을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타당화 과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척도이용에서의 개념적인 혼란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Roach와 동료들(1981)의 단일차원의 MSS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MSS가 연구자에 따라 단일척도와 다차원척도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본래의 척도 중 일부 문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같은 척도를 이용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Sabatelli(1984)의 척도를 결혼만족도 척도로 명명하고 있으나 이 척도는 점수해석의 문제점이 있으며, 다음의 여러 가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결혼만족도 척도로 이용하는 데는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Dahlsrom(1969)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반응은 다음의 3가지 수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가지는 척도점수가 행동에 대한 진실한 묘사로 불일치빈도의 응

〈표 2〉 우리나라 연구에서 이용된 결혼만족도 관련 측정도구의 예

측정도구	연구자
Roach et al.(1981) Marital Satisfaction Scale	김미숙·김명자(1990), 송말희·이정우(1986), 양명숙(1991), 윤경희(1997), 이경애·조병은(1994), 이인수·유영주(1986), 조병은·신화용(1997), 정은미·김명자(1996), 최규련(1984)
Schumm et al.(1986)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김득성(1989), 윤경자(1997, 1997b) 정현숙(1996a, 1996b, 1997)
Olson, Fournier, Druckman(1982) ENRICH	고정자(1998)
Spanier(1997) Dyadic Adjustment Scale	김혜선·김명자(1992), 박찬미·서명숙(1987)
Sabatelli(1984)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어은주·유영주(1992), 최연실·육선화(1987)
자체개발, 기존의 문항수정	고현선·지금수(1995), 김경신·김오남(1996) 임정빈·정혜정(1986), 조성욱·신효식(1987)

답은 부부의 실제 불일치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해석은 측정점수가 태도에 대한 잠재적인 반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일치가 높을 가능성도 있으나, 배우자가 비이성적이며, 배우자에게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다른 어떤 태도의 반영이라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점수의 의미가 실제자료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행동의 징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일치율이 시간 함께 보내기나 응답자의 자존감, 성행위행수 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은 개인과 관계를 맺는 대상 및 관계의 맥락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Sabatelli의 척도는 Dahlsrom의 3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수준을 이용해 판단한 점수의 의미를 결혼관계에서의 개인의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척도를 결혼만족도 척도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점은 Sabatelli와 Shehan(1993)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결혼만족도를 문화적 규범과 관계에서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교수준에 의해 설명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비교수준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재변인(mediator)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Sabatelli 자신도 결혼만족도 척도가 아니라 결혼비교수준척도(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로 명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많은 척도들의 개념적인 혼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의 결혼만족도 척도개발 연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측정도구의 정교화 작업과 다양한 집단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일차원과 다차원척도는 각기 기능적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혹은 임상분야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임상분야 뿐 아니라 가족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일척도인 KMSS와, 다차원척도인 DAS에 대한 척도의 정교화 작업이 <표 3>과 같이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학 연구에서 결혼만족도가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개발은 등한시되었으며 기존의 외국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척도이용에도 개념적인 오류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측정도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표 3> KMSS와 DAS의 척도 정교화와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

척도	연구자	연구내용
KMSS 척도	Calahan(1996) Crane, Middleton, & Bean(2000) Green & Woody(1998) Jeong & Bollman(1992) Schumm et al.(1986) Shek(1998)	QMA ¹⁾ 척도와 비교 간편형 DAS와 비교 흑인부부에 적용 결혼안정성척도와와의 관련성 비교 척도개발 중국부부에 적용
DAS 척도	Busby & Christensen(1995) Crane, Busby & Larson(1991) Crane & Allgoos(1990) Hunsley & Pinset(1995) Kazak, Jarnas & Snitzer(1988) Sharply & Cross(1982) Shek(1995) Spanier(1976, 1979, 1985, 1988) Spanier & Thompson(1982)	DAS 간편형 제작 구성타당도 연구 MAT ²⁾ 와 RMA와 비교 간편형 DAS 제안 척도의 전반적인 평가 구성타당도연구 중국부부에 적용 척도개발과 타당화작업 타당화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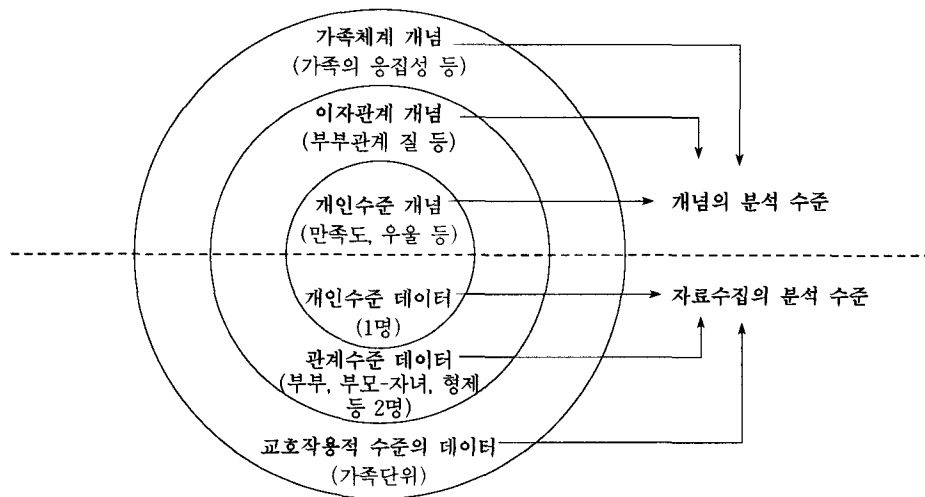
¹⁾ QMI: Quality Marriage Index: Norton(1983) ²⁾ MAT: Marital Adjustment Test: Lock(1951)

III.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할 이론적, 개념적 논의들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할 영역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된다. 한가지는 가족의 체계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연구하는데서 오는 가족연구의 독특성과 관련된 고려점들이다. 예를 들면, 과학적 연구를 위한 분석의 단위에 대한 고려 및 연구개념의 명확화 및 이론과 측정의 일치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고려점이다. 즉, 지금까지 결혼만족도의 연구에서 지적된 이 분야 연구의 이론적 부재나, 개념정의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이다. 두 번째와 관련된 논의는 정현숙(1997)의 논문에서 많은 부분 지적이 되었다. 세 번째는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강조되며, 친인척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 분야에서 중요한 고려점을 점검하여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연구의 독특성과 관련된 고려점

가족학에서는 가족을 성과 세대의 구조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동안 역사를 공유하면서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분야와는 달리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개념이나 변수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매우 중요한 개념적 틀이다. 가족연구에서 분석의 단위는 <그림 1>과 같이 측정개념의 분석수준과 자료수집의 분석단위의 두가지 의미로 이용된다. 자료수집의 분석단위는 가족 내에서 자료수집대상의 수에 따라 개인수준(individual-level)과 관계수준(relational-level) 및 교호적 수준(transactional level)의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 측정개념의 분석수준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이 개인, 혹은 관계의 특성인가, 아니면 가족의 체계적 특성을 재는 개념인가 하는 연구개념의 분석단위이다. 유계숙(1996)은 가족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분석 단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이며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림 1> 가족연구에서의 분석의 단위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결혼 만족도나 결혼의 질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개념에 기초한 분석단위로 볼 때는 차이가 있다. 결혼만족도는 관계에서의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생각(impression)을 나타낸다(Roach, et al, 1981; Sabatelli, 1988). 그러므로 개념적인 분석의 단위는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는 개인수준의 개념이다. 그러나 결혼의 질과 적응은 이자관계에서의 질을 측정하는 이자관계의 개념이다. 따라서 정현숙(1997)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보고(평가)인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각 배우자의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점수로 취급되어야 하며, 부부간의 총점을 계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같은 문항에 다르게 응답한다면 둘간의 차이를 '오차변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변인에 대한 부부간의 응답의 차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실제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iller et al, 1982).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개별점수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만족도에 대한 지각은 성차가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연구설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형은 관계수준의 자료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가족관계의 특성은 3가지의 이론적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만족이나 분노와 같은 관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수준의 측정 개념과, 부부, 부모-자녀, 고부관계, 형제관계 등 이자관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개념 및 가족전체의 응집성과 적응성 등 가족체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

어, '우리가족은 식사시간에 대화를 한다'는 가족전체의 의사소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며, '우리 부부는 식사시간에 대화를 한다'는 부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정도이다. 또한 '시어머니는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이자관계의 특징이며, 부부관계의 특징은 아니다. 친인척과의 관계에서의 역할에서 남편과의 이자관계의 특성은 '시어머니와 다투면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준다'와 같은 문항이 부부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된다. 이상의 가족에서의 분석단위에 따른 측정의 단위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이자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평가에 의한 척도이다. 1990년대의 결혼만족도 연구의 분석을 통해 Kluwer(2000)는 대부분의 측정도구가 개인적 평가에 의한 척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단지 ENRICH는 예외로 부부점수와 개인수준점수가 계산되어 이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자아평가에 의한 측정도구는 이러한 자기평가가 배우자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응답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기존 척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예: Fowers & Applegate, 1995; Fowers & Olson, 1993).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개념적으로는 이자관계의 특성인 '결혼적응도'나 '결혼의 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을 나타내는 개인수준의 개념이다. 그러나 측정수준에서는 부부 두 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여야만 결혼관계의 상호작

<표 4> 분석단위에 따른 분석 개념 및 하위구성요인의 예

	개인	이자관계(dyad)	가족체계(system)
삶의 질	삶의 질	부부관계의 질	가족생활의 질
만족도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
하위요인의 예	가족원의 정서적지지 개인적 성취	부부의 성과 친밀감 부부간 의사소통 여가 및 시간 함께 보내기	가족응집성 가족의 여가보내기 가족의 건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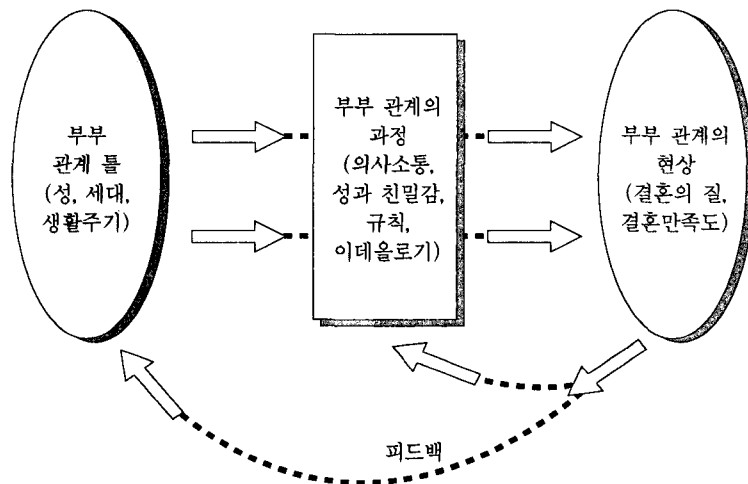
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결혼만족도 점수를 부부 두 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부관계의 특성이 측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두 명의 부부가 연구대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중요한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혼만족도 척도는 분석단위에 기초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두 사람의 다양한 상호작용과정을 나타내는 결혼생활에서의 질에 대한 이론적 기준이 제안되고 결혼의 질 하위 영역에 대한 각각의 배우자의 만족정도가 결혼만족도로 측정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고려점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결혼만족도는 국내의 가족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결혼만족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결혼만족도 분야연구에서 지적된 이론의 부재나, 구성개념, 측정과 관련된 고려점들이 재고되어야 한다.

1) 결혼만족도의 이론

결혼만족도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학 분야 전반에서 이론의 부재는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지적되고 있다(예: Adams, 1989; Sprey, 2001). 이론에 기반을 둔 개념의 정의는 학문의 발전과 가족연구의 과학성 추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결혼만족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가족의 내적 과정을 연구' 하는 가족학 연구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앞 절에서 지적하였듯이 결혼만족도는 이차관계인 부부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한 개인의 평가(결과)이므로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체계의 특성보다는 부부 이자의 관계내의 과정(process)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그림 2>와 같은 가족학적 시각에 의한 가족과정모델(정현숙·유계숙, 2001)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Burr, Day와 Bahr(1993)와 NCFR의 가족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위한 Task Force팀(1988)은 가족학의 학문적 성격을 '가족행동의 내적작용, 즉 관계에 맞추어지며, 가족 내에서의 감정, 사랑, 의식, 패러다임, 규칙, 일상생활, 의사결정 및 자원관리와 같은 가족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족학



<그림 2> 가족관계에서 부부과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가족체계와 그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부부관계의 과정은 가족내의 부부체계 내에서 만들어 낸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패턴은 가족체계이론에서의 체계의 속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가족체계이론에서 체계의 개념은 조직화된 요소들 안에서 나타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의 핵심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내는 패턴에 초점이 있으며, 가족의 체계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패턴이다(Burr, Day & Bahr, 199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혼의 질과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의 질이나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부부상호과정(process)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개념이다. 부부관계의 결과는 다시 부부관계의 틀과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관계의 틀은 고정적인 구조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sex, gender)은 사회적인 성과 생물학적인 성을 다함께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의 결과에 의해 가족생활주기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과정모델은 가족연구의 틀과 과정 및 결과로 개념을 분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문항이 오염(contamination)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부과정모델에서는 한 배우자의 결혼에 대한 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가 변화되는 궤도가 나타난다. 이런 궤도는 개인 배우자에게 여러 번 측정을 하여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궤도의 기울기(혹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는 이론적으로 관심이 있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로도 검증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피드백을 통해 계속 순환되는 결혼과정의 특징을 반영한 현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 측정한 결혼만족도는 그 이전이나 이후의 자료에 의한 비교에 의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면, 50점에서 1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한사람이 95점을 받았을 때,

이점수의 의미는 그 사람이 6개월 전에 110점을 받았는지 혹은 80점을 받았느냐에 따라 95점의 의미는 매우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을 강조하는 학자들(Karney & Bradbury, 1995; Kurdek, 1991)은 2단계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결혼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결과변인이지만 가족의 가족생활주기와 부부의 상호작용과정에 의해 궤도를 이루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사회인지적인 관점을 적용했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사회인지적관점에서 결혼만족도는 파트너나 관계에 대한 태도(attitude)이다. 즉, 만족도 점수는 만족의 정도가 변한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만족에 대한 개인의 평가(self-reported satisfaction)와 평가의 대상인 파트너와의 관련성의 강도도 변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관련성과 상대방에 의해 태도가 영향을 받는 정도는 만족도 평가수치와는 별개로 측정될 수 있다(Fazio, 1995). 즉,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매우 가변적인 사람과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결혼만족도와 결혼행동의 상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시간에 따른 만족도의 안정성은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들이 측정될 수 있다면 부부관계에서 파트너 행동에 대한 예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관계의 강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결혼만족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줄 때 결혼만족도 점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측정한 시기의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고, 다양한 시기의 측정은 결혼생활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생활주기의 특성이 고려된 결혼만족도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며, 부부들간의 결혼만족도 점수의 비교보다는 각각의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의 궤도를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측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측정 시기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척도의 신뢰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생활에서의 과정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점 중의 하나는 부부관계의 과정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하위영역을 구성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림 2>와 같이 부부의 상호과정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들)인 성(sex, gender)과 가족생활주기 및 세대구성이 바탕이 되어 상호작용방식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구조적 틀인 성과 세대에 대한 인식과 구조적 틀에 의해 부여되는 역할 등은 사회의 문화적 규범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이러한 틀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내용도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개념화를 위해서는 가족과정의 하위요인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때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하위요인을 규정할 것인가 혹은 문화적 특수성을 부여할 것인가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결혼만족도 척도와 관련되어 바람직한 결혼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예: Adams, 1988; Edmonds, 1967; McKenry & Price, 1988)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간 함께 보내기'가 행복한 결혼생활의 중요한 하위요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편견으로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이다(Chung, 1990).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터키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관계의 차원을 분석한 Imamoglu와 Yesim(1997)의 연구에서와 같이 문화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중요시 여기는 하위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기본적 이론적 틀은 가족과정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부부과정에 속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분석은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해 이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이차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평가'로 결혼만족도를 제안하였다. 즉, 결혼만족도는 결혼한 부부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인 결혼생활의 행복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위영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결혼당사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결혼생활에 대한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가가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평가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크게는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기준에 의하며(Montgomery, 1988), 배우자 당사자들의 느낌과 견해에 의해 높고 낮음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적 특수성, 세대 및 가족생활주기의 특성 및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반영되는 부부관계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 지역, 직업 및 가족생활주기가 다양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 행복함을 느끼는지' 혹은 '어떤 경우에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의 질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혼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2) 결혼만족도의 구성개념

결혼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들이 있다. 결혼은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과정과 기대를 수반하며, 결혼생활에서 올바른 부부관계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사회적 규범인 규칙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규칙은 한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을 예측해주며, 가족원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혼생활의 질'은 사회적 규범이나 준거의 틀로서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나 문화에서 규정한 결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 이상, 목표와는 다른 행동 유형을 창출하고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바로 개인의 지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가 바로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의 정도이며, 이러한 정도가 결혼만족도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결혼의 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내

용은 부부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가 결혼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만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불만이 없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부부간에 걱정이나 고민이 없는 상황이 아니며,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관계의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싸우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걱정을 이끄는 요인이 결혼생활의 행복을 이끄는 요인과 단순한 반대의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Fincham, Beach와 Kemp-Fincham(1997)은 만족과 불만의 독특한 차원이 인정되는 결혼과 결혼의 질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의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려는 이전의 노력들이 단일차원의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함으로써 결혼만족도를 긍정적인 측면이 현저하며 부정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없는 평가로 정의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도전하였다. Fincham과 동료들은 긍정적인 결혼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인 결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차원으로 따로 측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혼의 질의 이러한 두 차원을 측정하는 단순한 측정치를 이용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Fincham & Linfield, 1997), 기존의 결혼만족도 척도에서는 구분되지 않았던 두 집단 - 즉, 긍정적인 결혼의 질(positivity)과 부정적인 결혼의 질(negativity)의 점수가 둘 다 높은 집단과 두 요인의 점수가 다 낮은 집단이 결혼생활에서의 행동과 특성점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결혼만족도 척도는 결혼생활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3) 결혼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과제

다양한 부부과정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은 모든 사회과학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측정에 대해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측정도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Olson, Fournier와 Druckman(1982)은 ENRICH에 Edmond(1967)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하위영역(Idealistic distortion)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Fowier와 Applegate(1995)는 결혼생활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Edmond(1967)의 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척도가 결혼만족도의 타당도 척도라기보다는 결혼만족도의 또 다른 하위요인이며, 결혼생활과 파트너에 대한 긍정적인 왜곡을 통해 결혼생활 내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 왜곡(idealistic distortion)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Hunsley, Vito, Pinsent, James & Lefebvre, 1996; Russel & Wells, 1992)은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남편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Hunsley와 동료들(1996)에 의하면 사회적 바람직성의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결혼만족도와 다른 측정치들간의 관계는 바람직성을 통제해도 관계의 정도는 많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와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다른 서구에서의 연구결과이므로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항을 측정도구에 포함시키는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측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결혼만족도 척도가 결혼의 질에 대한 평가적 문항, 특별한 행동에 대한 문항 및 부부의 상호과정유형에 대한 문항이 혼합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Husley와 Pinsent(1995)가 수정형 DAS의 문항을 보면 '당신의 결혼생활을 고려하여 행복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라는 문항은 매우 불행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하다(6점)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평가인 결혼만족도를 묻는 문항이다. 반면, '당신은 배우자를 신뢰합니까?'라는 문항은 결혼의 질을 평가하는 이차관계의 개념이며, '당

신과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싸우니까?’는 특별한 행동에 대한 측정 문항이다. 따라서 올바른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과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 행동 중심의 측정 문항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혼의 질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개인의 배우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로 결혼만족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결혼만족도 척도의 측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의 성과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 다양한 가족유형, 종교, 자녀유무, 맞벌이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측정도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여러 유형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Kluwer(2000)도 측정도구들 간의 문항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결혼만족도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의 차이에도 한 차원으로 순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 따라 질문문항을 다르게 구성하기보다는 하위영역에 다른 가중치를 줌으로써 세대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측정하여 세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녀간의 성차는 부부간의 실제차이지만 부부점수와 같은 요약적인 점수에는 남녀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며, 부부간의 차이가 숨겨지게 된다. 따라서 질문지 문항은 남녀의 차이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결혼만족도를 남녀의 개인적인 점수로 개념화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3.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고려점

위 절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결혼의 질은 문화적인 규범이 반영된 개념이므로 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한 측정도구가 개발된다면 그 자체로 한국적인 문화를 많은 부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적인 결혼관은 사회적 규범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한국인의 결혼이 서구의 우애적 결

혼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특히 미국의 가족관계를 볼 때, 결혼이 사회와 확대가족보다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쾌락적요소인 성을 결혼의 질의 중요한 하위영역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결혼관을 가진 문화에서는 이러한 쾌락적 요소들이 같은 정도로 강조되지는 않는다. 또한 MAT의 하위문항인 ‘다시 태어나면 누구와 결혼하겠는가?’라는 문항은 중매결혼을 하는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항이다. 부부간의 일치정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들도 우리와 같이 부부간의 공개적인 불일치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가 쾌락적 요소보다는 더 중요한 결혼만족의 요인이 된다.

Kenny(1996)는 부부관계에서의 의존성모델에서 부부관계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 배우자(A) 특성이 다른 배우자(B)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유형은 A의 갈등행동이 B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모델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부부관계에서나 가능한 형태일 것이다.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두 번째 유형은 A의 특성이 B의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가능한 경우이다. 운명적 관계라고 명명된 세 번째 유형은 A와 B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원인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이다. 세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용되는 이론과 통계분석방법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결혼만족도 관련연구들은 첫 번째 유형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회귀분석 등을 통해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서구적 개념에서는 결혼만족도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개념이며, 우리 문화에서는 두 번째유형뿐만아니라 세 번째 유형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생활에서 친인척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측정도구는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개념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배우자들간에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변량 구조분석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결혼만족도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지만, 영향의 강도는 차이가 있으며, 남편들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 보다 부인들이 남편들의 결혼만족도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ung, 1990). 또한 부부의 개인적 특성인 성격이나 성역할, 자기노출 및 우울증 경향(예: 고정은, 1998; 김명자·박수선, 1996; 정은미·김명자, 1996; 정현숙, 1997; 조성욱·신효식, 1987)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상대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성격이 지적되며, 이혼의 원인으로도 성격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될 정도로 상대방의 성격적 특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부부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와 고부관계, 직업과 관련된 갈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취업유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고정자, 1998; 이호금, 1987; 이행옥, 1998; 장혜경, 1996), 부모자녀관계(노명희, 1998; 유은희·박성연, 1989, 1991)도 중요 영향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강조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상대적인 보상이 결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은 KMSS에 '당신은 어머니(아버지)로서의 아내(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한 문항을 첨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한 정현숙(1997)의 연구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많은 부부들은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자식이 늙음하다는 칭찬을 주변에서 들을 때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측면은 자녀를 통해 부모들이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이며, 자녀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정옥(1996)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40-50대의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기대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와 결혼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한 척도 문항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가족의 독특성은 고부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고부관계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차이가 없으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의 특성은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점차 평등적 결혼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고부관계에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부부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인의 결혼만족도 척도 문항은 '부인과 시어머니간의 갈등의 정도'보다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내편을 들어준다'와 같은 문항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문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적 결혼만족도 척도는 개인수준의 특성과 관계수준의 특성 및 체계수준의 특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의 결혼의 의미는 종족보존을 위한 목적에서부터 자아성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족의 영역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결혼의 질에 대한 하위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국적인 문화를 반영한 결혼만족도 척도의 개발이 가능하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부 중심의 평등적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 이용함으로써 문화적 오류가 많았으며, 또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타당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며 척도이용에서도 개념적인 혼란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결혼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차원적인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적, 개념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족연구의 독특성과 관련된 고려점으로 결혼만족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분석의 단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혼만족도는 측정개념의 분석수준에서는 개인수준의 데이터이며, 자료수집의 분석단위에서는 관계수준의 데이터이다. 반면 결혼의 질과 적응은 분석수준에서는 관계수준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이차관계에서의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적인 평가에 의한 척도이다. 즉, 두 사람의 다양한 상호작용과정을 나타내는 결혼의 질이 이론적으로 제안이 되고 결혼의 질 하위 영역에 대한 각각의 배우자의 만족정도가 결혼만족도로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결혼만족도 척도는 개념적으로는 이차관계의 특성인 '결혼적응도'나 '결혼의 질'과는 구분되는 척도이며, 결혼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을 나타내는 개인수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결혼만족도 분야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고려점으로 결혼만족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야 하며, 결혼만족도의 구성개념 및 결혼만족도 측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이차관계인 부부과정에 대한 개인의 평가(결과)로 정의하였으므로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체계의 특성보다는 부부 이차의 관계내의 과정에 근거한 가족과정모델(정현숙·유계숙, 2001)을 바탕으로 한 결혼만족도의 틀로 제시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부부간에 걱정이나 고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며,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의 구성개념은 결혼생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결혼만족도 측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척도가 결혼의 질에 대한 평가적 문항과 특별한 행동에 대한 문항 및 부부의 상호과정유형에

대한 문항이 혼합하여 문항이 구성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과 이론에 기초하여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 행동 중심의 측정문항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혼의 질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에 대해 개개인의 배우자가 느끼는 만족의 정도로 결혼만족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한국적인 결혼관은 서구의 우애적 결혼과 그 특성이 다르며, 결혼생활에서 친인척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자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성취와 결혼에 대한 기대, 친인척관계에서의 배우자의 역할 등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가 강조되며, 친인척관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는 가족의 체계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지적된 제안점 및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생활주기, 지역(서울, 수도권, 지방 등), 가족의 유형(초혼, 재혼가족, 핵가족, 확대가족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학적 특징(취업유무, 연령,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고, 아내와 남편을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표집을 통해 결혼생활의 질을 파악하는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부부과정에 대한 문화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이론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갖춘 측정도구는 가족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에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득성(1987).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연구보고, 13, 1-24.
-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71-84.
- 유계숙(1996). 가족 데이터의 통계적 산출 및 분석 방법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14(1), 11-19.
- 이인수, 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1-14.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Adams, B. (1988). Fifty years of family research: What does it me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17.
- Boughber, S., Hayes, S., Bubenzer, D., & West, J. (1994). Use of standardized assessment instruments by marital and family therapists: A surve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69-75.
- Bradbury, T., Fincham, F., & Beach, S.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64-980.
- Busby, D. & Christensen, C.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the use of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299.
- Burr, W., Day, R., & Bahr, K. (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Brooks/Cole Pub. Co.
- Calahan, C. (1996). Correlation of scores on the KMSS and Quality Marriage Index. *Psychological Reports*, 78(2), 530.
- Crane, D., Allgood, S., Larson, J., & Griffin, W. (1990). Assessing marital quality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7-93.
- Crane, D., Busby, D., & Larson, J. (1991). A factor analysi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60-66.
- Crane, R., Middleton, K., & Bean, R. (2000). Establishing criterion scores for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and 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53-60.
- Edmonds, V. H. (1967). Marital conventionalizati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681-688.
- Fazio, R. H. (1995). Attitudes as object-evaluation associations: Determinants, consequences, and correlates of attitude accessibility. In r. E. Petty & J. A. Krosnick(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pp. 247-282). Hillsdale, NJ: Erlbaum.
- Fincham, F., Beach, S., & Kemp-Fincham, S. (1997). Marital quality: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In R. Srenberg & M. Hojjat(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 Fowler B. & Applegate, B. (1995). Do marital Conventionalization Scale Measure a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237-241.
- Freeston, M. & Plechaty, M. (1997). Reconsideration of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Is it still relevant for the 1990s?. *Psychological Reports*, 82, 419-425.
- Green, R. & Woody, D.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MSS in a sample of Afro-Americans. *Psychological Reports*, 82(1), 255-258.
- Hunsley, J. & Pinsent, C. (1995). Construct validity of the short form of DAS. *Family Relations*, 44(3), 231-237.
- Hunsley, J., Vito, D., Pinsent, C., James, S. & Lefebvre, M. (1996). Are self-report measures of dyadic relationships influenced by impression management bia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322-330.
- Imamoglu, O. & Yesim, Y. (1997). Dimensions of marital relationships as perceives by Turkish husbands and wives.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3(2), 211-232.

- Jeong, G. & Bollman, S. (1992). Self-reported marital instability as correlated with the KMSS. *Psychological Reports, 70*(1), 243-246.
- Juni, S. & Grimm, D. (1994). Marit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dyadic gender-role constellation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06-112.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zak, A., Jarmas, A., Snitzer, L. (1988). The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82-91.
- Kenny, K.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 279-294.
- Kluwer, E. (2000). Marital quality. In R. Milardo & Duck, S.(Eds.), *Families as relationships*. NY: John Wiley & Sons.
- Kurdek, L. A. (1991). Marital stability and changes in marital quality in newly wed couples: A test of the contextual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27-48.
- Lavee, Y. (1991). The Linkage between Theory and Research in Family Sc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61-373.
- Miller, B., Rollings, B., & Thomas, D. (1982). On methods of studying marriage an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851-873.
- Montgomery, B. M. (1988). Quality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In S. W.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pp. 343-359). New York: Wiley.
- NCFR Task Force on the Development of a Family Discipline. (1988). What is Family Science. *Family Science Review, 1*(2), 87-101.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Olson, D., Fournier, D., & Druckman, J. (1982). *ENRICH*. Minneapolis: PREPARE-ENRICH
- Orden, S. & Bradburn, N. (1968).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 716-731.
- Roach, A., Frazier, L., & Bowden, S.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odgers, J., Calder, P. (1990). Marital adjustment: A valuable resource for the emotion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multiple sclerosi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4*(1), 24-32.
- Rollins, B. & Feldman, H. (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20-28.
- Russell, R. J. H. & Wells, P. A. (1992). Social desirability and quality of marriag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3*, 787-791.
- Sabatelli, R. (1984) The marital comparison level index: A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s relative to expec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537-546.
- Sabatelli, R. & Shehan, C.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G. Boss et al.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pp. 385-411). NY: Plenum Press.
- Schouten, P. (1994). A scale in search of a construct: Comments on Gavin & Wambould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1), 53-60.
- Schumm et al.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572.
- Schumm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M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harpley, C. & Cross, D. (1982). A psychometric

- evaluation of the Spanier's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9-742.
- Shek, D. (1995). The Chinese ver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Does language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6), 802-811.
- Shek, D.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MSS for Chinese parents. *Psychological Reports*, 83, 81-82.
-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panier, G. (1979). The measurement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 288-300.
- Spanier, G. (1985). Improving refine, recast, expand, clarity-don't aband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073-1074.
- Spanier, G. (1988). Assessing the strengths of the DA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 92-94.
- Spanier, G. & Thompson, L. (1982).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1-738.
- Spanier, G. & Thompson, L. (1985).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DA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731-738.
- Sprey, J. (2001). Theorizing family studies: Discovering process. In R. Milardo(Ed.), *Understanding families into the new millenium: A decade in review*(pp. 1-14). NCFR.
- Veroff, J., Kulka, R. A., & Douvan, E. (1981). *Mental health in America: Patterns of help seeking from 1957 to 1976*. NY: Basic Books.
- Wadsby, M. (1998). Evaluation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ENRICH marital Inventory.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2(5), 379-388.